

2019년 8월



해외출장 가이드

베트남 다낭 출장자료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목 차 】

I. 베트남 및 다낭 개황	01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투자 동향 ...	03
III. 베트남 경제 특징과 정책 동향	15
IV. 베트남 경제 전망	20
V. 체류시 참고사항	21
VI. 주요 연락처	23





I. 베트남 및 다낭 개황

1. 베트남 개황

국 가 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면 적	33만 2,378km ² (한반도의 약 1.5배)
기 후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수 도	하노이 (Hanoi, 758.8만명, 2018년 기준)
인 구	9,695만명 (2018년 CIA 통계 기준)
주요도시 (인구)	하노이(758.8만 명), 호치민(814.6만 명), 하이퐁(196.3만 명), 다낭(106.4만 명), 껀터(124.8만 명)
민 족	비엣족(깁족, 전 인구의 85.7%), 타이족, 화교(약 82만 명), 크레르 족 등 54개 민족
언 어	베트남어
종 교	불교(43.5%), 카톨릭(36.6%), 까오다이교(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종교) 등
건 국 일	1945.9.2.(독립기념일)
정부형태	국가주석제
국가원수	Nguyen Phu Trong (당 서기장 및 국가주석 겸임)
총 리	Nguyen Xuan Phuc
명목 GDP	USD 2,427억 (2018)
실질경제성장률	7.08% (2018)
1인당 GDP	USD 2,587 (2018)
화폐 단위	베트남동 (Vietnamese Dong, VND)
환 율	USD 1 = VND 23,250 (2019.01.04)
산업 구조	농업(6.9%), 제조업(15.8%), 건설업(4.8%), 도소매업(11.6%), 부동산업(5.8%), 금융업(3.7%), 숙박외식업(4.3%) 등
교역 규모	수출 : USD 2,447억 (2018) 수입 : USD 2,375억 (2018)



2. 다낭 개황

인구	106.4만명 (베트남 5대 중앙직할시 중 하나)		
GRDP('17)	USD 3,582백만		
1인당 GRDP('17)	USD 3,379		
경제성장률('17)	7.2%		
주요개발구 및 중점 분야	• 다낭 하이테크파크 및 Hoa Khanh 등 6개 산업단지 운영 • 중점분야 : 도시인프라개발(스마트 시티 등), ICT 등 하이테크 공업, 관광 및 부동산 개발, 금융업 등		
FDI누적	• USD 35억 5,600만 (2019.4)		
투자환경순위('17)	• 투자환경개선 : 2위 / 68개 성·시 • 투자매력도 : 17위 / 68개 성·시		
주요 산업	산업	비중	주요 업종
	3차	60.6%	상업·운수통신업·금융업·공무·서비스업 등
	2차	37.1%	제조업·광업·건설업·전기수도가스업 등
	1차	2.3%	농업·임업·수산업·목축업 등
베트남 기업	• (거점보유) VIN 그룹, HOANG ANH GIA LAI, VINSUN 그룹 등 대부분의 베트남 대기업 거점 소재		
	• (본사소재) Danang Rubber Company(타이어), 다나파(약품), 화토(방직), SUN(부동산/관광), 중부전력공사(전기), 다나메코(의학), Hoa Cam Concrete(건자재), Central Service Flight Company(항공정비) 등		
외국기업	•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의 투자진출 증가세 * (일본) Yamato Sewing Company, 28백만달러 투자 * (호주) RMIT University, 132만달러 투자		
한국기업 진출현황	• 롯데마트, CJ, 대원칸타빌, 락앤락 등 20여개 기업 진출		
전략적 가치	• 베트남 중부 최대 도시이자 동남아시아 「Trade Gateway」 * (인프라) 베트남 5대 무역항 및 최고수준의 교통·통신 인프라 보유 * (위치)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동남아 동서회랑(EWEC)의 동부 거점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태평양 진출 기지 • 총 25개의 대학교를 보유, 우수인력이 풍부하고 노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75% 수준에 달함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 · 투자 동향

1. 베트남 거시경제동향

구분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GDP	억 달러	1,556	1,706	1,859	1,915	2,013	2,232	2,427
GDP 증가율	%	5.2	5.4	6.0	6.7	6.2	6.81	7.08
1인당 GDP	달러	1,752	1,900	2,049	2,088	2,172	2,385	2,587
산업생산증가율	%	4.8	9.2	7.6	9.8	7.5	9.4	10.2
수출	억 달러	1,145.3	1,320.3	1,502.2	1,620.2	1,765.8	2,140	2,447
수입	억 달러	1,137.8	1,320.3	1,478.5	1,655.7	1,748.0	2,111	2,375
무역수지	억 달러	7.5	0.1	23.7	-35.5	17.8	29.0	72.0
물가상승률	%	9.10	6.60	4.09	0.63	2.67	3.53	1.48
외채	억 달러	615.77	654.52	724.23	778.06	856.41	104.07	-
공채	억 달러	399.40	429.40	448.07	463.35	480.17	517.81	-
외환보유고	억 달러	251.61	254.81	338.01	278.79	-	515	-
평균 환율	Dong/\$	20,828	20,933	21,148	21,698	21,935	22,451	-
기준금리	%	15	10	7	6.5	6.5	6.25	-
FDI	억 달러	163	224	202	241	224	297	354
외국인 관광객	천 명	6,847	7,572	7,800	7,944	10,010	12,900	-

주: 2018년 통계는 베트남 통계청 및 세관총국 추정치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세관총국,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중앙은행, ADB, WB, IMF, Trading Economics



□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경제 성장 추이 지속

○ 2018년 베트남은 10년 만에 최고치인 7.0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

- 이는 당초 정부 목표치였던 6.5~6.7%는 물론 대부분의 국제 금융기구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룩함.

* 국제기관의 '18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IMF(국제통화기금) 6.6%(18년 11월 기준), WB(세계은행) 6.8%(18년 11월 기준), ADB(아시아개발은행) 6.9%(18년 11월 기준)

- '18년도 상반기 베트남은 농림수산업, 산업 및 건설,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경기 회복세를 견인했으며, 상반기 경제성장률 또한 '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 2018년 베트남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 (1Q) 7.45% → (2Q) 6.73% → (3Q) 6.88% → (4Q) 7.31%

○ 미중 무역전쟁과 무역 보호주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호황

- '18년 말, 베트남 세관총국 통계(추정치) 기준 2018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약 2,447억 2,000만 달러로 예상,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7년 제조업 GDP 성장률(14.4%)보다는 낮은 11.4%의 GDP 성장률을 달성

* 베트남의 연도별 제조업 GDP 추이(%): ('11년) 14.1 → ('12년) 9.1% → ('13년) 7.2% → ('14년) 7.4% → ('15년) 10.6% → ('16년) 11.9% → ('17년) 14.4% → ('18년) 11.4%

- 통계청이 발표한 '17년도 대비 '18년도 주요 성장산업군은 휘발유와 석유(51.2% 상승), 철강류(43.8% 상승), LPG(29.8% 상승), TV(24% 상승), 알루미늄(23.3% 상승), 식물 (35.1% 상승), 수산물(17.3% 상승)이며, 반면 작년도에 강세였던 스마트폰 제조가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성장률은 1%에 그쳤음.

○ 2018년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속 경제성장에도 거시 경제 안정성 유지

- 2018년도 경제성장률이 7.08%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44% 상승, 4년째 4%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연 초 국회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함.

* 베트남의 연도별 제조업 CPI 추이(%): ('13년) 6.60% → ('14년) 4.09% → ('15년) 0.63% → ('16년) 2.66% → ('17년) 3.53% → ('18년) 3.54%

- 또한, 재정 적자 감소, 주식 시장 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외 교역

- '18년 말 베트남 통계청 추정치 기준, 2018년 베트남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 2,447억 2,000만 달러(전년 대비 13.8% 증가), 2,375억 5100만 달러(11.5% 증가)로, 교역액 4,800억 달러를 돌파
 - 2018년 베트남의 대외 교역은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에서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교역 확대 기조를 유지
- 2017년 베트남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치인 약 29.1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함에 이어, 2018년에는 두 배를 상회하는 약 72.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역대 가장 높은 무역 흑자를 달성함.

□ 서비스, 농림수산업, 공업·건설 분야 예년대비 양호한 성장세 시현

- '18년 말 기준, 베트남 GDP 성장에 가장 큰 비율을 차하고 있는 산업군은 공업·건설업으로, 전년 대비 8.85% 성장하며, 전체 GDP의 48.6% 기여 함.
- 서비스업은 베트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7%로, 전년 동기 대비 7.03% 성장, 그 중 도소매업의 성장률이 8.51%로 가장 크게 기여
- 농림수산업은 3.76% 성장하며 '12년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GDP 기여도는 8.7%로 점차적인 회복세를 시현 중

□ 안정적 투자유치 기조 유지

- 2018년 베트남의 FDI 유입은 양호한 실적 추이를 나타냄
 - 2018년 베트남은 총 355억 달러(전년 대비 15.6% 증가)의 FDI 유치 실적을 기록
 - 2018년 12월 20일 기준, 총 3,046개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으며 총 등록 자본금은 180억 달러에 이룸
 - FDI투자의 일등 공신은 제조업으로 약 166억 달러를 유치, 전체 FDI의 46.7%를 차지하였으며, 부동산 분야가 2위로 66억 달러(18.6%를 차지), 도소매 분야가 37억 달러(10.3% 차지)로, 그 뒤를 이음



2. 대외 교역

□ 베트남의 대외 교역 동향

- 지난 5개년 개발계획 기간(2011-2015) 베트남의 대외 교역액은 연평균 12.6%(수출액 13.7%, 수입액 11.6%)의 속도로 증가했음. 2016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 부진의 여파로 예년 대비 상당히 둔화된 교역액 성장세를 시현
- 2017년 베트남의 대외 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전년 대비 20% 이상의 성장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달성
 - 이와 같은 대외 교역 성장률 상승에는 전년도 교역 성장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삼성의 휴대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관련 원부자재 수입 및 완제품 수출 급증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
- 2018년에도 베트남의 대외교역은 꾸준한 성장을 보였으며,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 2,434억 8,328만 달러, 2,366억 8,79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2%, 11.1% 증가하였으며, 67억 9,536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 달성

<베트남의 대외 교역 동향>

(단위 : USD 백만, 증가율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	114,529 (18.2)	132,033 (15.3)	150,217 (13.8)	162,017 (7.9)	176,581 (9.0)	214,019 (21.2)	243,483 (13.2)
수입	113,780 (6.6)	132,033 (16.0)	147,849 (12.0)	165,570 (12.0)	174,804 (5.6)	211,104 (20.8)	236,688 (11.1)
무역수지	749	0	2,368	-3,554	1,777	2,916	6,795

자료원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2018년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 현황>

(단위 : 10억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액(비중)	순위	국가명	수입액(비중)
1	미국	47.5(19.5)	1	중국	65.4(27.6)
2	중국	41.3(16.9)	2	한국	47.5(20.1)
3	일본	18.9(7.7)	3	일본	19.0(8.0)
4	한국	18.2(7.5)	4	대만	13.2(5.6)
5	홍콩	8.0(3.3)	5	미국	12.8(5.4)
6	네덜란드	7.1(2.9)	6	태국	12.0(5.1)
7	독일	6.9(2.8)	7	말레이시아	7.5(3.1)
8	영국	5.8(2.4)	8	인도네시아	4.9(2.1)
9	태국	5.5(2.3)	9	싱가포르	4.5(1.9)
10	아랍에미리트	5.2(2.1)	10	인도	4.1(1.8)
기 타		79.1(32.7)	기 타		45.8(19.2)
합 계		243.5(100)	합 계		236.7(100)

자료원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2018년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

(단위 : USD 백만, %)

순위	품목명	수출액(비중)	순위	품목명	수입액(비중)
1	전화기 및 그 부분품	49,077(20.2)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42,198(17.8)
2	섬유·의류제품	30,489(12.5)	2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33,727(14.2)
3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29,321(12.0)	3	전화기 및 그 부분품	15,865(6.7)
4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16,549(6.8)	4	식물	12,775(5.4)
5	신발류	16,238(6.7)	5	철강재	9,890(4.2)
6	목재 및 목제품	8,909(3.7)	6	플라스틱 원료	9,067(3.8)
7	수산물	8,796(3.6)	7	석유제품	7,640(3.2)
8	수송수단 및 그 부속품	7,964(3.3)	8	비금속	7,250(3.1)
9	카메라 및 그 부분품	5,238(2.2)	9	플라스틱 제품	5,893(2.5)
10	방직사	4,025(1.7)	10	섬유·의류·신발의 원부자재	5,709(2.4)
기 타		66,877(27.5)	기 타		86,674(36.6)
총 계		243,483	총 계		236,688

자료원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한-베트남 교역 동향

- 2018년 한-베 교역 규모, 682억 601만 달러 기록
 - 한국의 대외 교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던 2014~2015년에도 한-베 간 교역액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확장세를 지속
 - 2018년 전체 통계 기준,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8.1% 하락한 290억 달러 수준으로, 무역수지 성장률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한국에게 무역흑자를 주는 무역상대국
 - * 2017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 477억 4,900만 달러, 수입액 161억 7,600만 달러
- 2018년 전체 통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 486억 2,851만 달러, 196억 317만 달러로,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이자, 7위 수입국

<한국의 對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 USD 백만, %)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 (한→베)	22,352 (6.0)	22,771 (24.2)	32,630 (17.5)	47,749 (46.3)	48,629 (1.8)
수입 (베→한)	7,990 (11.4)	9,805 (22.7)	12,495 (27.4)	16,176 (29.5)	19,632 (21.4)
무역수지	14,362	17,966	20,135	31,573	28,997
교역규모	30,342	32,576	45,125	63,925	68,260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협회 무역통계

<참고> 한국 교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위상 변화

- * 수출 : ('14)6위 → ('15)4위 → ('16)4위 → ('17)3위 → ('18)3위
- * 수입 : ('14)15위 → ('15)10위 → ('16)8위 → ('17)7위 → ('18)7위
- * 교역 : ('14)8위 → ('15)4위 → ('16)4위 → ('17)4위 → ('18)4위
- * '18년 기준,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2위 교역대상국(수출 4위, 수입 2위)



<한국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SD 백만, %)

순위	수출품목명	2017년 수출액 (비중)	2018년 수출액 (비중)
1	반도체	9,234(19.3)	10,939(22.5)
2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7,367(15.4)	8,909(18.3)
3	무선통신기기	3,286(6.9)	2,632(5.4)
4	가구부품	2,612(5.5)	2,332(4.8)
5	석유제품	1,987(4.2)	1,980(4.1)
6	합성수지	1,442(3.0)	1,660(3.4)
7	플라스틱 제품	1,152(2.4)	1,205(2.5)
8	편직물	1,118(2.3)	1,106(2.3)
9	철강판	985(2.1)	1,049(2.2)
10	광학기기	794(1.7)	943(1.9)
	기타	15,760(37.2)	13,856(32.6)
	합계	47,754(100.0)	48,629(100.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D 백만, %)

	수입품목명	2017년 수입액 (비중)	2018년 수입액 (비중)
1	무선통신기기	3,964 (24.5)	4,835(24.6)
2	의류	2,875 (17.8)	3,570(18.2)
3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604 (3.7)	1,137(5.8)
4	신변잡화	797 (4.9)	980(5.0)
5	목재류	511 (3.2)	793(4.0)
6	컴퓨터	560 (3.5)	534(2.7)
7	가구부품	469(3.1)	445(2.3)
8	산업용 전기기기	317(2.0)	415(2.1)
9	반도체	374 (2.3)	396(2.0)
10	영상기기	400 (2.5)	362(1.8)
	기타	5,279 (32.6)	4,147(31.1)
	합계	16,177 (100.0)	19,632(100.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3.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동향

□ 베트남 FDI 총괄

- '88년~'18년 (12월 20일) 누계 기준 對 베트남 총 외국인직접투자는 27,353건, 3,401억 달러
- '18년 1~12월 기간 총 외국인 직접투자는 4,215건, 255.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 16.9% 감소, 투자건수 6.0% 증가 중소규모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 '16년 통계부터 출자 및 주식매입도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으나(외국인 직접투자 = 신규투자 + 증액투자) 로만 분류 (출자 및 주식매입 방식 투자 미포함)

<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신규 + 증자) >

(단위: USD 백만,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투자 금액	16,348	22,352	20,230	24,115	22,379.7	30,783.1	25,572.8
투자 건수	1,287	1,530	2,182	3,038	3,862	3,975	4,215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기획투자부(MPI)

□ 국가별 FDI 동향

- '88년~'18년 (12월 20일) 누계 기준 국가별 외국인 투자는 한국이 투자건수 7,459건, 투자금액 625.6억 달러로 최대 투자국. 금액기준,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약 18.4% 차지
 - 이어 일본(3,996건 570.1억 달러), 싱가포르(2,159건 466.2억 달러), 대만(2,589건 314.4억 달러) 순
 - '18년 1~12월 동안의 국가별 직접투자(신규+증액)는 일본이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31.2%의 비중을 차지하며 2017년 이후 연간 투자국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3.1% 투자 비율로 2위에 자리
 - 이어 싱가포르(12.7%), 홍콩(7.5%), 중국(6.5%), 버진아일랜드(2.0%) 순
- * Sumitomo社(일본) 하노이 북부지역 스마트시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총 41억 달러 투자('18.6.17)

< 對 베트남 국가별 투자 누적액 상위 8개국의 최근 5년 투자동향 >

(단위: USD 백만, 건)

순위	국가명	2015	2016	2017	2018년	1988~2018 누적
1	한국	6,983.2 (1,029건)	6,895.8 (1,263건)	7,801.8 (1,339건)	5,928.5 (1,446건)	62,566.9 (7,459건)
2	일본	1,803.4 (475건)	2,509.8 (574건)	8,718.6 (601건)	7,989.3 (630건)	57,018.3 (3,996건)
3	싱가포르	2,082.5 (204건)	2,123.3 (309건)	4,939.0 (271건)	3,269.8 (295건)	46,623.0 (2,159건)
4	대만	1,468.2 (187건)	1,351.6 (222건)	1,162.6 (206건)	679.5 (204건)	31,444 (2,589건)
5	버진 아일랜드	1,217.3 (89건)	826.3 (88건)	487.3 (65건)	534.6 (70건)	20,790.7 (793건)
6	홍콩	1,148.1 (150건)	1,626.1 (228건)	1,412.9 (232건)	1,936.9 (242건)	19,829.1 (1,422건)
7	중국	744.1 (210건)	1,705.9 (358건)	1,645.8 (380건)	1,662.5 (479건)	13,348.7 (2,149건)
8	말레이시아	2,478.8 (49건)	688.3 (68건)	161.2 (47건)	282.2 (54건)	12,478.2 (586건)
FDI 투자총계		24,115 (3,038건)	22,379.7 (3,862건)	30,783.1 (3,975건)	25,572.8 (4,215건)	340,159.4 (27,353건)

* 자료원 : 베트남 투자청, 순서는 '88년~'18년 12월 누적 투자액순(1220일 기준)

□ 업종별 FDI 동향

- '88년~'18년 (12월 20일) 누계 기준, 제조업 분야가 전체 투자의 57.4%를 차지, 다음으로 부동산경영(17.0%), 전기/가스/용수 제조업(6.7%), 호텔요식업 (3.5%) 순
- '18년 1~12월 기준(신규+증액) 대 베트남 제조업 직접투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55.3%(1,808건, 141.6억 달러)로 누적 평균과 비슷한 수치 기록
 - 반면, 부동산 경영업 투자는 전체 외국인투자 중 23.2%(123건, 59.4억 달러)를 차지하며 누적 평균을 뛰어넘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기타 전력/가스/용수 제조 공급 6.3%(21건, 16.2억 달러), 도소매, 유지보수 3.1%(876건, 8.0억 달러), 과학기술업 1.2%(474건, 3.2억 달러) 순제조·공급 6.9%(12건, 11.1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

(단위 : 건, USD 백만)

구 분		'88년~'18년 누적		'18년 1~12월 (신규 및 증액 직접투자)	
#	산업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3,149	193,651.2	1,808	14,161.2
2	부동산경영	754	57,928.3	123	5,944.2
3	전력, 가스, 용수제조 공급	116	22,811.1	21	1,627.6
4	호텔, 요식업	727	11,963.4	123	87.1
5	건설	1,576	10,062.7	152	244.4
6	도소매, 유지보수	3,414	6,752.5	876	809.8
7	물류운수	728	4,908.5	97	259.3
8	채광	108	4,903.8	2	25.4
9	교육, 양성	448	4,340.9	84	61.8
10	농, 임, 수산	492	3,462.1	25	132.3
11	정보 통신	1,873	34,04.2	290	364.5
12	예술 오락	131	3,398.8	8	1,131.2
13	기술과학전문	2,760	3,300.4	474	327.4
14	용수공급, 폐수처리	70	2,639.1	10	242.5
15	의료, 사회복지	140	1,970.3	11	17.5
16	행정, 지원 서비스	384	947.0	90	117.5
17	기타서비스	133	714.6	12	4.3
18	금융, 은행, 보험	57	643.7	9	14.2
19	가정용 렌탈서비스	5	7.9	-	-
합계		27,065	337,811.2	4,215	25,572.8

* 자료원 : 베트남 투자청, 순서는 '88년~'18년 누적 투자액순('18.12.20. 기준)

한국기업의 투자 동향

- '88년~'18년(12월 20일) 누계 기준, 한국은 7,459개 프로젝트에 62,566억 달러를 투자, 제1위 투자국으로, 2, 3위인 일본, 싱가포르와 격차 유지 중
- '18년 1~12월(12월 20일) 동안 한국의 직접투자(신규+증액)는 1,446건 59.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투자건수는 7.9% 증가하였으나 투자금액은 24.0% 감소
- '18년 1 ~ 12월 연간 투자규모는 6월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일본에 이어 2위

< 한국기업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 (신규 및 증액) >

(단위: 건, USD 백만, 신고기준)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988~2018 총 누계
투자액	4,293.5	7,327.5	6,983.2	6,895.8	7,801.8	5,928.5	62,566.9
건 수	488	684	1,029	1,263	1,339	1,446	7,459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88년~'18년 누적 투자액순('18.12.20. 기준)

한국기업의 업종별 투자 현황

- '88년~'18년 (12월 20일) 누계기준, 한국기업의 투자 업종은 제조업 73.1%, 부동산경영 13.7%, 건설 4.3%, 물류운수 1.6%, 도소매 및 유지보수 1.3%, 호텔/요식업 1.3%, 기술과학 전문업 1.0%, 순
- '18년 1~12월(11월 20일) 직접투자(신규+증액)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50.1억 달러로 총 투자의 84.6%를 차지하였고, 건설(1.7억 달러, 2.9%), 부동산경영 (1.5억 달러, 2.5%), 도소매 및 유지보수(0.9억 달러, 1.5%) 순
- 2018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여전히 제조 산업에 집중되었으며, 누적 평균을 10% 이상 상회하는 등 최근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한국기업의 업종별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USD 백만)

구분		'88년~'18년 누적			'18년 1~12월 (신규 및 증액 직접투자)		
#	산업	투자 건수	투자 금액	점유율 (%)	투자 건수	투자 금액	점유율 (%)
1	제조, 가공	4,035	45,736.3	73.1	701	5,018.0	84.6
2	부동산경영	152	8,592.8	13.7	35	153.3	2.5
3	건설	840	2,748.3	4.3	84	177.1	2.9
4	물류운수	151	1,055.7	1.6	22	91.7	1.5
5	도소매, 유지보수	800	849.7	1.3	265	93.1	1.5
6	호텔/요식업	280	836.6	1.3	72	62.6	1.0
7	기술과학전문	500	660.9	1.0	109	88.0	1.4
8	전력, 가스, 운수	28	612.8	0.9	3	88.8	1.4
9	정보통신업	289	386.0	0.6	73	81.1	1.3
10	의학 및 사회봉사	34	230.5	0.3	5	3.9	0.0
11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25	180.2	0.2	3	2.4	0.0
12	행정, 지원 서비스	112	144.8	0.1	37	52.0	0.8
13	운수 및 폐기물 처리	8	134.6	0.2	-	-	-
14	농, 임, 수산	38	114.8	0.1	1	9.0	0.1
15	채광산업	4	114.2	0.1	-	-	-
16	교육, 양성	94	73.2	0.1	31	5.9	0.1
17	재정, 금융업	7	55.8	0.0	1	0.6	0.0
18	기타 서비스업	60	38.1	0.0	4	0.3	0.0
19	가정용 렌탈 서비스	2	0.7	0.0	-	-	-
합계		7,459	62,566.9	100	1,446	5,928.5	100

자료원 : 베트남 투자청, 순서는 '88년~'18년 누적 투자액순('18.12.20. 기준)



□ 한국기업의 지역별 투자 현황

- '88년~'18년 (12월 20일) 누계 직접투자(신규, 증액) 기준, 한국기업의 최대 진출 지역은 박닌성으로, 전체 투자의 **15.8%(98.8억 달러)**를 차지
 - 이어 하이퐁 10.7%(67.4억 달러), 하노이 9.7%(60.7억 달러), 동나이 9.4%(59.3억 달러), 타이응우웬 8.0%(50.3억 달러), 호치민 7.8%(49.6억 달러) 순
 - 누계 투자금액 기준 지역별 투자는 북부(56.7%), 남부(36.7%), 중부 및 기타(6.6%)

□ 주요 한국투자 프로젝트

< 2018년 1~12월 주요 한국기업 투자 프로젝트 현황 >

(단위 : USD 백만)

연번	기업명	분야	투자금액	지역
1	Hyosung Chemical Corp	폴리프로필렌 & LPG 플랜트	1,201	Ba Ria Vung Tau(남부)
2	Hyosung Advanced Materials	폴리에스터, 나일론	210	Quang Nam(중부)
3	HALLA E&C	태양광 개발	106	Ba Ria Vung Tau(남부)
4	SEOUL ENERGY	풍력개발	70	Binh Dinh(남부)
5	COBI INTERNATIONAL	목재가공	60	Long An(남부)
6	MIRAE ASSET CONSULTING	부동산개발	45	Ho Chi Minh(남부)
7	SAMYANG CORP	플라스틱	45	Dong Nai(남부)
8	HANKUK CARBON	카본	45	Binh Phuoc(남부)
9	SAMIL PHARMACEUTICAL	제약	40	Ho Chi Minh(남부)
10	SAMIL VINA	봉제, 섬유	40	Dong Nai(남부)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신규 투자 중 투자신고액 상위 10개 프로젝트



III. 베트남 경제 특징과 정책 동향

1. 베트남 경제 및 시장 특징

□ 동남아시아 및 중국, 인도 시장 진출 교두보

- 2015년 12월 AEC(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기점으로 국제 통상무대에서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는 양상
- 특히, 베트남은 베트남-EU FTA, RCEP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통해 대외시장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베트남은 거대 경제권과 아시아의 FTA 허브로 부상하며 원료 공급지, 저임금 생산기지로서 주요 수출시장, 거대 내수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음

□ 베트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DI 기업군

- FDI 기업이 베트남 수출 성장을 견인
 - 2017년 FDI 기업군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22.9% 증가한 1,521억 8,900만 달러.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71%에 해당하는 수치로, FDI 기업군의 수출 성장 기여도는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
 - * 연도별 총 수출액 대비 FDI 기업군 수출액 비중(%) : ('13년) 61.3 → ('14년) 62.5 → ('15년) 68.2 → ('16년) 70.2 → ('17년) 70.9 → ('18년) 70.7
- 베트남 사회개발에 있어서도 FDI 기업군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
 - 2017년 FDI 기업군의 사회개발 투자액은 전체 사회개발 투자자본의 23.8%에 해당하는 386조 2,000억 동(약 176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

□ 거대 인구를 보유한 떠오르는 신흥시장

- 9,600만여 명의 인구를 보유한 베트남은 세계 15위의 거대 인구국가로, ASEAN 회원국 가운데서는 인도네시아(약 2억 6700만 명, 세계 4위), 필리핀(약 1억 700만 명, 세계 13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
-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는 15~34세의 젊은 층 인구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산층이 베트남의 핵심 소비계층으로 내수시장 성장을 견인



- 청소년기 및 결혼·육아기 연령층 소비자의 주요 소비품목인 IT·생활가전제품, 유아용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대도시 거주 중산층 가구를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
- * '17년 기준 베트남의 중산층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23.2%에 해당되는 약 671만 8,300가구이며, '30년 803만여 가구까지 증가할 전망
- 도시 유입 인구 증가와 소득수준 증대에 기반한 상품 수요의 다양화·고급화와 함께 현대적 유통망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시장도 활발히 성장 중
- 최근에는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높은 접근성을 겸비한 미니마트와 편의점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
- 가처분소득 증가 및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비 지출 확대,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지속 성장할 전망
- VECOM(베트남 전자상거래 협회)에서 회원사 설문 조사를 토대로 추산한 2017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약 25%이며, 온라인 소매판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5% 상승한 것으로 추산됨

□ 1국 3색의 베트남

- 베트남 북부·중부·남부는 물리적 거리, 역사적 배경, 상이한 기후조건 등으로 경제 성장 격차가 상당하며, 소비 성향과 투자 환경면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 일반적으로 총 인구의 약 16%가 거주하고 있는 호찌민시(남부)와 하노이(북부)를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해 있으며, 최근에는 다낭(중부)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
 - (호찌민시) 베트남 경제도시이자 최대 소비시장으로, 소비시장 성장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재편 등을 토대로 상당한 규모의 해외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 (하노이) 행정 수도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하노이는 최근 인구급증과 활발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베트남의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 중임. 인프라 개선과 행정개혁 노력, 외국인투자 유치의 질적 내실화를 다지며 동남권 유망 투자지로 재조명 받고 있는 분위기
 - (다낭) 베트남 및 동남아의 대표적 휴양지에서 베트남의 신생 투자지로 부상 중. 2017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차세대 경제 도시로서의 입지가 보다 강화될 전망



2. 베트남의 정책 동향

□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추구

- 베트남은 2016~2020년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통해 2011~2015년 실적을 상회하는 고성장을 목표화하고, 산업 생산력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각종 산업 정책을 마련, 추진 중
- 제조업 육성 정책
 -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2014년 6월 9일자 Decision 879/QD-TTg)을 통해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
 -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림수산업, 수출용 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채택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
 - 베트남의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비는 현지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 기업의 현지 투자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자, 베트남 무역적자의 주요인
 - 중간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업 간 자구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도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부품·소재 산업 부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함
 - * 부품·소재 산업 관련 투자기업에게 법인세, 수입세, 부가가치세(VAT) 및 신용대출 우대 제공

□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노력 가속화

- FTA 체결 및 경제공동체 참여를 통한 우호적인 대외 통상환경 조성
 - 베트남은 총 12개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 중. 특히, 2015년 말에는 AEC(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하였으며, 2016년에는 베트남-EU FTA를 타결하고 베트남-EAEU FTA를 발효하여 단기간 세계 주요 경제권을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
 - 2014년 12월에 타결된 VKFTA(한-베트남 FTA)도 2015년 5월 정식 서명 과정을 거쳐 당해 12월 20일 발효함
- RCEP 협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탈퇴로 좌초 위기가 예상됐던 TPP도 11국 체제의 CPTPP로 재편되면서 베트남 정부 및 대내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베트남의 FTA 참여 현황〉

구분	발효 중	발효 예정 (타결·서명)	협상 중	검토 중
ASEAN 차원	AIFTA(인도, '10.1. 발효), AANZFTA(호주/뉴질랜드, '10.1. 발효) AKFTA(한국, '07.6. 발효) AJCEP(일본, '8.12. 발효), ACFTA(중국, '05.7. 발효)	-	RCEP, AHKFTA(홍콩)	-
베트남 단독	AEC(아세안경제공동체, '15.12. 출범), VJEPA(일본, '09.10. 발효), VCFTA(칠레, '14.1. 발효) VKFTA(한국, '15.12. 발효), VA-EAEU FTA(유라시아경제연합, '16.10. 발효)	CPTPP('18.3. 서명), EVFTA(유럽연합, '15.12. 타결)	VEFTAFTA (유럽자유무역연합), VIFTA (이스라엘)	FTAAP (아시아태평양)

□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정 및 정비

- 자본력이 부족한 베트남에서 FDI 자본은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
 -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제 정비 및 내부 구조조정, 관련법 개정을 지속 추진 중
- 2014년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개정법들은 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됨
 - (투자법) 여러 개의 법률에 혼재되어 있던 금지 또는 조건부 허용 사업이 정비됐으며, 2017년부터는 기존 267개 조건부 투자사업 부문을 243개로 줄인 투자법 일부 조항 개정안이 시행됨
 - (기업법) 법인설립 시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게 동일한 방식의 ERC 신청 규정, 법인설립인증서 발급 시일을 3일 단축, 법인 이사회 의사결정 정족수 기준 일부 완화 등이 골자
 - (주택법) 비자 승인을 받은 모든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취득요건을 완화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 2020년까지 사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의 지속적 이행을 결의(Resolution 19-2017/ND-CP)
 - 특히, 각종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을 ASEAN 4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민간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 추진

- 2016년 출범 베트남 신정부, 성장구조 개선과 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민간기업 발전에 기반한 성장 노선 채택
 - 응우웬 쑤언 폭(Nguyen Xuan Phuc) 총리는 2016년 5월 가졌던 임기 첫 정기 회의에서 민간기업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임기 중 중요 과제로 천명
- 국영기업 내 국가지분 매각 가속화 추진
 - 2017년 8월, 베트남 정부가 정부투자금 회수 대상 기업 리스트 및 회수율을 성문화된 법령으로 최초 발표(Decision 1232/QD-TTg). 이에 따르면 2017~2020년, 406개 국영기업 내 정부투자금이 연도별 계획에 따라 회수(매각)되며, 일부 기업은 다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
 - * 연도별 투자금 회수 대상 기업 : ('17년) 135개 → ('18년) 181개 → ('19년) 62개 → ('20년) 28개
- 중소기업지원법 도입
 - 베트남 정부는 민간기업, 특히 전체 기업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 추진 중
 - 베트남 사상 최초로 발의된 중소기업지원법이 2017년 6월 국회를 통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 은행 대출 용이화, 법인세 감액(최대 3% 감액), 중소기업 대상 전국구 지원 프로그램 구축, 창업 기업의 사업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마련이 주요 내용
- 스타트업 육성
 - 폭 총리는 2016년을 '국가 창업의 해'로 지정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과 관련한 각종 방안을 발표함
 - 2016년 베트남의 신설 기업 수가 사상 최초 10만 개를 돌파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제도 지원 하에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
 - *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추산한 베트남 내 스타트업 수는 약 1,500개로, 국민 1인당 스타트업 창업 수에서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를 앞지름
- PPP(민관합작) 방식의 인프라 개발 적극 추진
 - 베트남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개선과 공공부문 투자 효율성 증대, 민간 기업의 SOC 개발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을 목표로 PPP 방식의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 중
 - 2018년 6월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SOC 개발 프로젝트 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PPP 방식 투자에 관한 시행령(Decree 63/2018/ND-CP)을 발효했으며, PPP 투자법도 2019년 중 초안 작성 작업에 들어가 2020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IV. 베트남 경제전망

□ 베트남의 중·단기적 경제 전망, 낙관론이 우세

- 2019년 베트남 정부의 목표 성장률은 6.6~6.8%로, 국제 금융 기구들도 6% 중반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
- (교역)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전쟁 우려로 대미 수출 여건 악화 우려
 -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양호한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
 - 하지만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베트남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국을 타깃으로 한 미국발 통상 압박이 강화되고 있어 인근 국가인 베트남의 대미 수출에도 타격 우려
 - * 5월 21일 미국이 내린 베트남산 철강(냉연강,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 결정은 베트남을 경유해 우회 수출되고 있는 중국산 철강을 타깃으로 한 조치로 풀이됨
- (투자)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전년도 수준의 높은 외자 유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
 - 기존 제조기지로서의 지리적·경제적 이점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재, 유통, 부동산 투자 유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
 - 정부의 국영기업 개혁과 부실채권 처리 가속화에 따른 M&A 매물 증가도 베트남의 외자 유치 확대에 우호적으로 작용 중
 - 다만,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에 기인한 외자 유입 둔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정부의 리스크 관리능력이 성장기조 유지의 관건

- 베트남 경제 환경, 우호적 요인과 비우호적 요인 상존
 - (우호적 요인)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금리·동화 가치 안정세, △농업 생산량 개선 등
 - (비우호적 요인)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대외적 변수와 함께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실채권 처리와 국영 기업 구조개혁, △조세 수입원 축소, △취약한 민간경제 부문, △낮은 노동생산성 등 많은 대내적 위협 요인이 잠재
-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노력과 리스크 관리능력이 성장 모멘텀 유지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와 금융 건전성 규제, 국영기업 개혁 등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성 확고화가 정부 주요 과제로 지목되고 있음



V. 체류 시 참고사항

1. 날씨

- 복장 : 여름용 정장 및 평상복
-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하여 얇은 긴소매 겹옷, 가디건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2. 입국 시 유의사항

- '10. 9월부터 입국신고 간소화로 출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 작성 불요
- 한편 여권 훼손, 분실 시 출입국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

3. 환율

- USD 1 = VND 23,250 ('19.4 신한베트남 현금매도율 기준, VND 10,000 = 약 500원)

4. 대중교통

- 대중교통 :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 불명확하므로 택시이용 편리
- 요금
 - 기본요금은 택시회사에 따라 VND 5,000~12,000까지 상이
 - 가까운 시내 주행 시 VND 60,000(약 3천원) 정도로 저렴함

5. Tip 제도

- 베트남에서는 정상요금에 봉사료가 포함, 팁 지불 불요

6. 시차 및 근무시간

-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느림 (한국 9시는 베트남 7시)
- 근무시간 : 관공서와 은행은 주 5일 근무제(월~금)를 실시 (07:30-16:30)



7. 전압 : 220V / 50Hz (3상 콘센트, 호텔은 한국 2상 콘센트 사용가능)

8. 전화 거는 방법

- 베트남에서 외국전화시 00 먼저 누르고 국가번호 및 전화번호 누름

9. 유의사항

- 소매치기/강도 및 시클로(삼륜 자전거) 주의
 - 최근 외국인대상 소매치기/강도 등 범죄 증가, 늦은 시간 혼자 배회 자제
 - 최근 시클로 및 세움(오토바이택시)의 경우, 바가지 요금 및 범죄 행각 증가
- 보행 시 주의요망
 - 도로에 신호등, 육교 등이 거의 없어 도로 횡단 시 매우 위험
 - 도로, 호텔 근처에서 호객을 하는 경우는 장물일 확률이 높으므로 구매 지양
 - 현지인과 사소한 문제로 언쟁할 경우, 집단구타, 흉기위협이 있을 수 있음
 - 지갑, 여권, 휴대폰, 태블릿 PC 등의 도난 주의
- 음료수 등 음식물 주의
 - 길거리 음식 및 해산물은 간염, 이질 등 위험이 높음. 가능한 끓인 물,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
- 택시 이용 시 주의요망
 - 가능한 호텔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미터기에 나온 금액보다 더 나왔을 경우 가능한 적은 금액은 포기하는 것이 신변에 안전함
 - 택시기사 중 일부는 분쟁발생시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음
- 베트남 유흥업소 출입은 매우 위험
 -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호객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 정부는 현지 유흥업소 및 마사지샵 등을 불시 집중단속하여 성매매 사범 등을 구금 및 강제추방하고 있음 (베트남은 매춘 금지 국가)



VI. 주요 연락처

1. KOTRA 다낭무역관 (KOTRA Da Nang)

- 주소 : 4th Floor Bach Dang Complex
50 Bach Dang St., Hai Chau Dist., Danang, Vietnam
- 전화 : (84-236)710-9700, 팩스: (84-236)377-9700

▷ 이성녕 관장	H.P. 090-222-1359
▷ 최준환 대리	H.P. 037-554-6947
▷ Dinh Thuy Trang	H.P. 090-515-9199
▷ Doan Thi My Linh	H.P. 090-561-1461

2. 한국 대사관(하노이)

- 주소 : 28th Fl.,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 전화 : (84-24) 3831-5110/6, 팩스 : (84-24) 3831-5117

3. 한국 총영사관(호치민)

- 주소 : 107 Nguyen Du St., Dist.1 HCMC, Vietnam
- 전화 : (84-28) 3822-5757 팩스 : (84-28) 3822-5750

4. 긴급의료시설

- 빈멕 병원 : Vinmec International Hospital, Da Nang
 - 주소 : No. 4 - 30/4 street, Hai Chau, Da Nang
 - 전화 : (+84)236-371-1111 (Hotline)



5. 현지 주요식당

<한 식>

식당명	주소	TEL	비고
한강	173 Duong Tran Dao, Nai Hien Dong, Son Tra	023)6391-7468	일반한식집
경복궁	Lo4 A3.5 Khu Cong Hai Chau	070-468-2673	일반한식집
고구려	107 Duong Dinh Nghe, An Hai Bac, Son Tra	093-442-1529	일반한식집
대장금	61 Duong Tran Phu, Hai Chau1, Hai Chau	023)6384-3636	일반한식집
비원	29 Morrison, Phuoc My, Son Tra	093-216-5824	일반한식집

<중 식>

양자강	173 Duong Tran Dao, Nai Hien Dong, Son Tra	023)6391-7468	일반중식
예원	Lo4 A3.5 Khu Cong Hai Chau	070-468-2673	일반중식

<일 식>

Dasushi	150 Phan Chau Trinh, Phuoc Ninh, Hai Chau	023)6357-3939	일반일식
KyotoSushi	Lo 9-10 Vo Nguyen Giap, Quan Son Tra	098-907-7944	일반일식

<베트남식>

Madame Lan	4 Bach Dang, Thach Thang, Hai Chau	090-569-7555	베트남 전통식
Tre Viet	180 Bach Dang, Hai Chau1, Hai Chau	023)6357-5809	베트남 전통식

<도시락배달>

안릉도시락	25, An Thuong 4, My An, Ngu Hanh Son	023)6357-3939	한식도시락
정성도시락	Thong 50, Tran Duc	036-483-0229	한식도시락
본죽	2 Ly Tu Trong, Thach Thang, Hai Chau	023)6353-8209	한식도시락

<야식배달>

개미야식	57 Tran Dinh Dan, Son Tra	090-646-1511	닭발 등
코코넛 피플	20-22 Ly Thanh Tong, Son Tra	039-884-2768	후라이드 치킨



<참고1> 한-베트남 고위급 외교 일지

○ 한-베 수교 (1992. 12. 22)

○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 교류 활발

- 1993.5월 Vo Van Kiet 총리 방한
- 1996.11월 김영삼 대통령 방베
- 1998.12월 김대중 대통령 방베
- 2001.8월 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방한
- 2002.4월 이한동 총리 방베
- 2003.9월 Phan Van Khai 총리 방한
- 2004.10월, 2006.11월 노무현 대통령 방베
- 2007.11월 Nong Duc Manh 당서기장 방한
- 2008.3월 Nguyen Phu Trong 국회의장 방한
- 2008.4월 임채정 국회의장 방베
- 2008.5월 Truong Tan Sang 당 상임서기 방한
- 2009.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Korea week)
- 2009.12월 김형오 국회의장 방베
- 2010.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아세안 정상회담)
- 2011.11월 Truong Tan Sang 국가주석 방한
- 2013.9월 박근혜 대통령 방베
- 2014.10월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방한
- 2014.12월 Nguyen Tan Dung 총리 방한,
한-베 FTA 체결 타결
- 2015.5월 한-베 FTA 공식 서명
- 2015.12월 한-베 FTA 공식 발효
- 2017.4월 정세균 국회의장 방베
- 2018.3월 문재인 대통령 방베



<참고2> 다낭시 및 인근 지역 주요 관광지

1 바나힐스 (Ba Na Hills)		▶ 다낭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소재한 프랑스 식민지 시절 건설된 휴양지 (해발 1500m)로 Ba Na는 '신성한 여인'을 뜻함 ▶ 세계에서 2번째로 긴 총 길이 5801m의 케이블카 보유 (소요시간 약 20분) ▶ 정상에는 프랑스 마을, 판타지 파크(놀이시설), 밀랍 인형 박물관, 머큐어 호텔(4성급) 소재 ▶ 입장료 : VND 65만(약 33천원)-뷔페포함 시 VND 70만
2 린응사 (Linh Ung Temple)		▶ 다낭 해안가 북쪽, 선짜 반도 언덕에 위치한 사원으로 거대한 해수 관음상으로 유명 ▶ 관음상은 총길이 67m로 내부에는 서로 다른 형상을 한 21개의 불상이 소재 ▶ 영응사 안에는 사원들과 거대한 석상, 고목들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 ▶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인해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
3 미케 해변 (My Khe Beach)		▶ 미국의 유명 경제 잡지 포브스 (Forbes)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해변 베스트 6에 포함 ▶ 페리세일링(보트가 낙하산 끌어주는것) 등 몇 가지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음 ▶ 시내에서 들어와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해변으로 접근성이 매우 좋아 현지인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
4 오행산 (Marble Mountain)		▶ 동양 철학에 따른 하늘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Thuy Son(水山), Moc Son(木山), Hoa Son(火山), Tho Son(土山), Kim Son(金山)으로 구성 ▶ 14~15세기 중부 베트남을 지배했던 참파 왕국의 조각상 및 18세기 베트남의 떠이 선(西山) 왕조의 다양한 베트남 시대의 유적들을 관람 ▶ 입장료 : 계단 VND 15천(750원) / 엘리베이터 15,000동/회

5 용다리 (Dragon Bridge)



- ▶ 다낭 한강(Han River)에 위치한 다낭의 랜드마크
- ▶ 2009년 7월에 건설을 시작, 2013년 3월 개통
- ▶ 15,000개의 LED램프로 야간 조명 (7가지 색으로 변함)
- ▶ 매주 토, 일 21시에 용머리에서 불쇼를 진행(약 10분)
- ▶ 주변에 '사랑의 다리' 및 '용이된 인어'상이 소재, 포토존의 역할을 함

6 다낭 대성당 (Da Nang Cathedral)



- ▶ 베트남 중부 다낭 대교구 성당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대 다낭에 지어진 유일한 성당
- ▶ 치솟는 선과 크라운 아치의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성당 안에는 성서의 사건을 그린 삽화가 있음
- ▶ 지붕에는 합금으로 만든 회색 닭 조각상이 있어 치킨 교회로 부르기도 함
- ▶ 국내 TV프로그램에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소개

7 다낭 한시장 (Da Nang Han Market)



- ▶ 한 시장은 다낭 최대 규모의 종합 재래시장으로 다낭 대성당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할 정도로 가까이 위치
- ▶ 고기, 생선, 과일 등의 식료품부터 꽃, 비단 등의 옷감, 티셔츠나 청바지 등의 옷, 신발, 기념품 등 판매
- ▶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

8 호이안 올드타운 (Hoi An Ancient Town)



- ▶ 다낭 시내에서 차량으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
- ▶ 15~19세기 동남아 무역항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 ▶ 중국·일본의 건축양식과 베트남 전통방식이 결합한 당시 건물(일본교, 광동회관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호이안 야시장 역시 가까이에 위치
- ▶ 입장료 : VND 120,000(6천원)

9 미선유적지 (My Son)



- ▶ 다낭에서 남서쪽으로 69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참파 왕국의 힌두교 사원 유적지로 4세기~14세기에 세워짐
- ▶ 미선은 참파 왕국의 종교였던 힌두교 시바 파의 성역이며, 참파 왕국 전체의 수도였음
- ▶ 사원군은 2개의 산맥에 의해 둘러싸인 2km 너비의 골짜기 안에 있음
- ▶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참고3> 간단한 베트남어

안녕하세요. Xin chào. (썸 짜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Rất vui được gặp ((남) anh/(여) chị)
(젓 부이 드억 갑 (아인/찌))

상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ngài đã cho gặp.
(썸 감 언 응아이 다아 쏘 갑)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ất có ích đối với tôi.
(젓 꼬 익 도이 버이 쏘이)

또 뵙겠습니다. Chúng ta sẽ gặp lại nhau. (쑹 따 쎬에 갑 라이 냐우)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썸 감 언)

얼마입니까? bao nhiêu tien?(바우니우 땡?)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Anh/Chi Ten gì a?(아잉(남)/찌이(여) 땡 지 아?)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Tên tôi là (Hongkildong). (땡 쏘이 라(홍길동))

잘 모르겠습니다. Tôi không biết. (쏘이 크음 비엣)

실례합니다. Xin lỗi. (썸 로이)

오늘 hom nay (홈 나이), 내일 ngay mai (응아이 마이), 어제 hom qua (홈 콰)



www.kotra.or.kr